

어게인 트럼프?...바이든, 주요 여론조사 모두 밀려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80세 고령 업무수행에 의문 제기”

NBC 조사 국정지지도 취임후 최저...공화 경선서 헤일리 부상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대당의 유력 후보에게 모두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CNN과 NBC 방송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18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CBS뉴스와 CNN, 폭스뉴스, 마켓트 로스쿨, 쿼타피엑스 등 주요 5곳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NBC 방송도 지난 10~14일 미 전역의 등록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오차범위 ± 3.1%)의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4%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에게 2% 포인트 뒤처졌고 19일 보도했다.

이처럼 비록 오차 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에게 모두 밀리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지난 80년간 미국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10%포인트 조금 넘는 차이로 앞섰다고 CNN은 전했다.

여기에는 194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후 거의 모든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격차는 작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우위를 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할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놓고 민주당 내 분열을 이유로 드는 시각도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진보 성향 인사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N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정당하다’는 답변은 27%인 반면에 51%는 ‘과도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55%가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을 지지했으나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가까이(49%)는 이런 지원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념보다는 경제와 나이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이달 초 발표된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시애틀 타임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던 조지아 등 6개 주의 유권자 71%가 그가 유능한 대

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다. 2020년에 이같이 답한 유권자 3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는 77세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거부감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다.

한편, NBC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40%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방송의 역대 조사에서 가장 낮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57%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18~34세 젊은층의 지지율이 급락해 지난 9월 조사에선 46%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엔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부상이 NBC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8%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가운데 한때 ‘트럼프의 대항마’로 불렸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18%, 헤일리 전 대사 13%, 나머지 후보는 3% 이하였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9월 조사(7%)보다 지지율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연합뉴스

중·후대전화 수출 부진 지속 지난해 40% 이어 올해 6%↓ 소비 부진·삼성 철수 등 원인

지난해 7년 만에 40%가량 급감했던 중국 휴대전화 수출 부진이 올해도 지속하고 있다고 제일경제 등 현지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휴대전화 수출은 6억4천200만 대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10월 수출이 8천111만 대로 전년 동월보다 10%가량 증가했지만, 올해 1~10월 수출 부진을 만회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 및 수출 기지였던 중국의 휴대전화 수출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15년 13억4천300만 대에서 작년 8억2천200만 대로 쪼그라들어 7년 만에 39%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일경제는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 휴대전화 소비 부진을 꼽았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15억5천만 대였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8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12억 대로 2017년보다 22.6% 급감했다.

중국 기전(機電)제품 수출입상회 가오스완 대변인은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도 중국 휴대전화 수출에 타격을 줬다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日 기사다 지지율 ‘위험’ 신호 20%대 최저...“퇴진 위기 난국”

견잡할 수 없는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지 못해 정권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며 20% 초·중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잇따라 나왔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장기 집권을 노렸던 기사다 총리가 개각과 감세 추진이라는 승부수를 뒀지만, 차관급 인사의 연이은 불명예 퇴진과 감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내각이 퇴진 위기 난국에 직면했다고 현지 언론은 진단했다.

보수 성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19일 유권자 1067명(이하 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사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13~15일 조사보다 10%포인트(p) 급락해 24%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지율 20%대는 일본에서 정권 위기 수준인 ‘위험 지대’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가자시타 주민들이 가자지구 남부로 피란하고 있다. 가자시타 서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자이툰과 자발리야를 다음 공격 목표로 지목하고 19일 공습했다. /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 “가자 주민 대피한 학교 공습...너무나 충격”

이스라엘, 유엔 학교 등 공격

하마스 “80명 넘게 사망” 주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대피소로 쓰이던 학교 두 곳이 공습받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날 유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가자에서 24시간도 안 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학교 두곳이 공격받은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의 유엔 학교 등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80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18일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UNRWA는 유엔 학교 한곳이 공격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사망자가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구역에서 안전한 곳을 찾으려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수십명

이 숨지고 다쳤다”면서 “나는 재차 우리 구역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재차 촉구한다”며 “우리는 카타르 정부가 이끄는 모든 중재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이날 가자지구 내 학교 공습에 대해 “끔찍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가자에서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이 어디 있는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경매서 27억원에 팔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가 썼던 이각 모자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경매에서 193만2천 유로(약 27억3천200만원)에 낙찰됐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2014년 경매 당시 최고가로 기록된 188만4천 유로(약 26억6천500만원)를 넘어선 액수라고 경매업체 오세나 옥션은 설명했다.

당시 모자는 한국 식품업체 하림의 김흥국 회장이 낙찰받았다.

프랑스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서 열린 이번 경매에서도 양쪽이 뽀족하게 생긴 펠트 재질의 검은색 모자가 나왔다.

경매사 대표인 장피에르 오세나는 나폴레옹이 약 120개의 모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검은색 비버 펠트 모자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고 전했다.

이 모자는 보급장교였던 피에르 바이옹 대령부터 여러 사람 손을 거쳤고 지난해 숨진 사업가 장루이 누아지즈가 소장하고 있었다. 모자를 낙찰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전장에서 다른 장교들과 달리 행이 양쪽 어깨를 향하도록 모자를 썼다. ‘앙 바타유’(전투 중) 스타일로 불린 모자 덕분에 병사들이 나폴레옹을 쉽게 식별했다고 한다. 영화 ‘나폴레옹’ 개봉을 앞두고 이번 경매가 이뤄져 논쟁적인 프랑스 통치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